다。

그러나나의걱정은우리의所願은어느뉘가慰安을주며어느분이成功해줄것이냐!? 언제하든지내가할일이오언제하든지우리가할일이니걱정해서무엇하리!

그런즉무슨必要로걱정하며무엇을爲하야걱정하겟느냐 旣爲로러진일을걱정으로발붙수업고 病든몸이걱정한다고나을理가업슬것이오 오래감은때靑天을向하야怨望하고걱정한다고비가내릴理가업슬것이다。世上事몬우다그러하니樂觀할일이다。비가오나서리가내리나그대로安化할일이다。그리고하음업는成功을바라보고나어갈일이다그러면人生은幸福으로살수잇슬것이며江山에는꽃이필것이다。

二九五五•九•三〇

「生」

玩海

萬物은流轉한다 刹那刹那에間斷없이流轉하며活動한다 有情이나無情이나 天體나地球나할것없이온갖모든것이流轉한다 春草梧葉이며大地에喧擾와沈默이모다 時間과空間을通하야流轉하고잇다 이流轉이야말노끈活動이며生의表象이다 이生을爲하야아니이生의生답기를爲하야모든努力이있으며奮鬪가잇다 이生을爲하야螳螂의後을追하는黃雀의擧動과黃雀의後를追하는王子의出演이있어써競爭의修羅場을이루기도하며、이生을爲하야相扶相助의手腕과人類平和의粉飾이이러나게된다 生物界이나非生物界이나그모든作用은 이生을爲함이다 참으로그活動하는度數는植物界에있어서는下等植物에比하야高等植物이그더함을볼것이며

動物界에있어도亦是下等動物에比하야高等動物이더甚함을볼것이다 人類社會에도艸野時代에그네들의活動力에比하야進步된今日에서더甚함을볼지니이것이生의眞理며必然일것이다 地球表面에나는草木은地球表面으로붙어모든榮養을攫取하야自體의細肥

을養하는反面에다시地球에表面을保護하며 母胎에있을瞬間붙어母血을吸收하며 다시母乳를吸取하야그自體가生長하는反面에다시母體를繁殖하는 이競爭과扶助를併行하는이것이畢竟生을爲함이안이고마었일까 人類는이生을爲하여 모든犧牲과忍耐와精進을앗기지아니한다!!모든制裁와處分을바며 個人으로 社會로 國家로 서로서로모든場面이이러나며 物質界로 精神界로 서로서로온갖問題가交換된다 이生의生답기를爲하야宗敎와 藝術과모든主義가잇다 이生을永遠토록無量數劫까지延長하랴는것이宗敎일것이며 이生을生답게하자는것이藝術일것이다 生을認許하고批判하는것이哲學일것이며이生을損失없이進展하자는것이倫理며道德일것이다。

이生을覺하고悟한이는聖人이며 이生을迷하고醉한이는凡夫일것이다 죽는것도生을爲함이요 사는것도生을爲함이다 行住坐臥와語默動靜에어느것이이生을爲하지안음이있으랴 風雪을무릅스는艸木도그新生을求함이어던 生을爲하고生을爲하는人類이랴過去도現在도未來도모든時間을通하야 生을爲하야生을追求하는것이 우리人生이다 그럼으로우리는堅實한土臺上에立脚하야着實한努力과精進을가주고이生을爲하야生의生답기를爲하야 生을다하는것이流轉活動하는人生의本意일까한다

天下에告하노라

姜裕文

東嶺에한낫松實이싹튼다 將次凌雲巨材를보리로다

吾人은잠든지오래엿다 또流浪한지오래엿다

日高三丈 窓外에人馬가분주하니 앞길이밧부도다 世界各國은駸駸然疾走하야 曰經濟曰政治曰科學曰哲學曰宗敎무엇무엇모다自力擴充을爲하야人類文化를爲하야 最善의努力을水火中에서다하도다驚神泣鬼할各種發明 眞理가吐舌할各種思索이모다가

이에서의產出이아닌가 보라 北極氷原에서白熊과 싸호든探峻家를 單間書齋에서三四日間食事를잇고 研究에沒頭하는學者를 朝鮮에이사람이얼마나되는가 吾人은잠든지오래엿다 衣裡寶珠 窮子가모름이여 헛도히流浪하도다 吾人은堅로蒼遠한歷史를가젓고 橫으로大陸强族과의角逐을가진關係上 그天才를代로보앗스며 그文化일즉이불만한것이이섯도다 그러나 수日에잇서 朝鮮文化를돌아보느니 바이업고 한갓拜外에醉하얏스니 우리는流浪한지오래엿도다

回顧하면朝鮮文化를북도두어준손은적지안타 그러나朝鮮歷史文化篇에 페이지마다燦爛한光彩로繡노코아로색인것이야 佛敎가흘노엿다 試하야朝鮮藝術의黃金時代라稱할新羅의그것을看하라 얼마나佛敎가吾人의게貢獻이多大하엿든가 藝術샌이라文學等其他에잇서도 또한그러하얏다 石窟庵의一片石一彫紋을賞讚하느니잇스되 朝鮮佛敎를돌아보느니업스며 朝鮮文學을말하되 元曉 憬興 大賢等의佛徒를아느니 적으니 朝鮮文化에이만한偉功이잇스면서도 吾人의게 이러케忘却된佛敎를對하야 吾人은이제엇더한낫김을가질것인가 吾人은躊躇치안코말하겟노라 昏夢을覺한수日에잇서서는 하루밧비朝鮮佛敎를開拓하며 進하야研究에全力을바칠것이랏고

이에잇서 本年四月에呱々의聲을半島中央에서發한「佛專」은旱餘의甘雨 雪野의春風이되야 잘도나온것이라하겟다 朝鮮文化를念頭에노치안는사람이잇다면 누가이에입마추지안으며 握手치안으랴 그러나世人이아직이를 앎이적은듯함은 吾人이크게놀내는同時에 擊鼓打鐘코大聲疾呼하야天下에紹介하면서當局者에對하야自家策勵를더하기바랜다

吾人은以上에서昔日의朝鮮佛敎가朝鮮文化에잇서功獻이만핫는것을말하얏다 그러나수日의朝鮮佛敎는엇더한가함을反思할제 朝鮮佛敎徒된者 赧然히垂首함을 禁치못할것이事實일것이다 그러나吾人은부르짓노라 朝鮮佛敎界에 慧超 元曉 大覺 淸虛等先師의英靈이 삭아지지안은以上 朝鮮佛敎徒의가삼속에서는 뜨거운聖血이뛰여 朝鮮을껴안는사랑 朝鮮文化를북도두울힘이될것이랏고

佛專! 이야말노朝鮮佛敎徒로서 수日朝鮮文化에對한唯一貢獻이며 荒蕪한朝鮮佛敎界開拓에對한唯一機關일것이다 朝鮮佛敎生命이 흥르러여기잇스

며朝鮮文化大部生命이 또한여기잇다함을至當한말이라할것이다 넷것은頹癈되고 새것은아직建立되지못한수日朝鮮에잇서서 이것이야말노 안스고노치못할貴重子格일것이다

「佛專」이背後에비록朝鮮佛敎中央敎務院이란財團法人의直接經營者가잇다할지라도 全朝鮮一千三百餘寺刹의七千僧尼十七萬信男女의赤誠을기우름이아니면功이全域에至치못할것을 杞憂치안을수업는바이다要컨대 이「佛專」은財團法人朝鮮佛敎中央敎院의經營인데 이敎務院은三十一本山即全朝鮮一千三百餘寺刹의經營이니 「佛專」은實노全朝鮮佛敎徒의一致合力의結晶인同時에 全朝鮮佛敎徒는 이것의向上發展에盡力할義務가잇다는것이다 形式으로던지內容으로던지 縱으로橫으로朝鮮佛敎社會에잇서무슨事業보다도 이것에全力을傾注치안으면안될것이事實이다 생각이이에이르니 아직幼幼稚稚한수日의「佛專」이將次雲霄를直衝할松栢의싹과가치보이며 將次朝鮮文化의淵藪가될 려잡이가치보인다。

吾人이愚라한들 엇지이觀察만이야智者되지못함을得하랴。

現實生活에서가장實踐的이면서 智識의宗敎이고哲學의宗敎인佛敎는恰恰한現代人의歎呼를바듬이至切且當한것이다。

大佛敎의思想은方수西洋人까지의생각속으로沈潤된다 就中에도學術思想이 가장進步된獨逸人에더욱그러하다 수日西洋에서佛敎가비록 外形的으로流布의顯著함은보지못한다할지라도 西洋에서의佛敎運動이東洋에서의어느敎가外部로强히吹込하는것과는달너서 各國의自覺에서배여름을 吾人은注意할것이다 이러케佛敎는方수世界大衆化하려는이때이니 朝鮮佛敎의이機關은 더욱意義가깁고 任이重한것임을吾人은深切이늣기고 이에對하야뜻잇는外護內助를바래면서 간단하나마 정성스것天下에告하노라